

1518년 6월 22일 서울에서 발생한 피해 지진의 특성

경재복¹⁾, 이병희²⁾

¹⁾한국교원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jbkkyung@knue.ac.kr

²⁾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Characteristics of the 22 June 1518 Seoul Earthquake

Jai Bok Kyung¹⁾, Byung Hee Lee²⁾

¹⁾Department of Earth Science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²⁾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집중되어 아파트와 주요 시설물, 지하철, 교량, 파이프라인 등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 내진설계, 장단기 지진 예지를 위해 과거 지진 기록의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과거 2000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피해지진의 기록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A.D. 27년 10월(음) 지진(MMI VIII)에 의해 가옥이 무너진 기록이 있으며, 89년 6월(음) 지진(MMI VIII~IX)에는 가옥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많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이후 서울에는 1518년 6월 22일(음력 5월 15일) 큰 피해 지진(MMI VIII~IX)이 발생한다. 역사문헌 기록(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申用漑의 二樂亭集 권9, 金安老의 龍泉談寂記 등)에 의하면 경외(京外)의 땅이 4일 동안 크게 흔들려서 태묘전(太廟殿)의 기와가 떨어지고, 대궐 안의 담장이 넘어지고, 민가(民家)가 무너지니, 남녀 노소(男女老少)가 모두 바깥 한데(露處)로 나와서 이에 뒤덮여 압사(壓死)하는 것을 면하고자 하였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여 그 소리가 우레 같았으며 가옥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사람과 말이 놀라 쓸어지고 기절하기도 하였다. 가옥이 무너지고 웅기(항아리)가 서로 부딪혀 깨지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지진 발생 일에는 지진이 밤새도록 반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지진은 8도에서 감진되었으며, 여진은 7월 10일까지 19일간 지속되었고, 감진된 지진의 횟수는 적어도 24회 이상으로 파악된다. 이때 황해도 지역에는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22일간 유발지진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1518년 지진 이후 서울 지역에는 1613년 7월 16일의 지진(MMI VIII)에 의해 가옥과 담장이 많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 외에도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여 뚜렷한 피해 기록은 없지만 강한 지진동과 함께 남한 면적 이상의 넓은 지역에서 감진된 지진으로 1692년 11월 지진, 1707년 1월 지진, 1714년 3월 지진 등이 있다.

주요어 : 서울, 피해지진, 1518년, 가옥붕괴